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향수* · 김혜경†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2019년 5월 30일 접수: 2019년 7월 1일 수정: 2019년 7월 1일 채택)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and Communication Type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Hyang-Soo Kim* · Hey-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May 30, 2019; Revised July 1, 2019; Accepted July 1, 2019)

요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로 총 204부의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성적 성격강점과 감성적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이성친구 유무를 예측변수로 대인관계만족도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6.5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대인관계만족도 총 변화량의 45%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격강점에 관한 자기인식을 높이는 상담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 성격강점, 의사소통, 대인관계, 만족도, 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and communication type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esents basic data for helping healthy University Life.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May 7 to 28, 2018. 204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As a result,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followed by intellectual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character strengths, communication types and the presence of a heterosexual friend. The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power was 45percent of the total changes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k777@jwu.ac.kr)

in interpersonal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t will also be useful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s that enhance self-awareness of character strengths.

Keywords : Character Strengths,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서 및 감정 교류와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연속적인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경험과 교류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특히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보다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2-3]. 그러므로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밑거름 된다[4-5].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은 달라질 수 있다[5].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요구수준을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대인관계 만족[6]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하며 개인에게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 행복감 등을 주는 반면 불만족스러운 대인관계는 배신, 거부, 질투, 의심, 욕구좌절, 소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7-8]. 이렇듯 대인관계 만족은 자신의 정서나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5].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을 특정 짓는 사고, 감정 및 행동 등의 집합체로 외부환경에 특정 반응을 보이는 인간행동이다[9].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격적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인간이 지닌 성격 중 가장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미로 긍정심리학의 바탕을 둔 성격적 강점[10]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어떠한 성격적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이해하여 강점은 향상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Seligman은 인간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과거 심리학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11]. 그리하여 인간의 약점만큼 강점에, 인생에 있어 최악의 것을 회복하는 것만큼 최고의 것을 설계하는 것에, 불행한 이들의 삶을 치유하는 것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증만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11-12].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경쟁적인 학업성취만이 강조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9]. 또한 졸업 후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로 좌절감이나 우울에 빠져 사회생활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회피로 이어져[9] 취업을 포기하는 등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며[13],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므로 개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성격적 강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개발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에서 피드백을 통해 배우고 성장이 이루어지므로[15],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16]. 또한 의사소통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을 표현하고 교류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며[4]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Satir는 사람들이 긴장 시에 사용하는 의사소통과 대처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왔는데 사람들이 공통된 방법으로 긴장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방식들을 회

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구분하였고[16] 역기능적인 네 가지 대처유형을 제거하고 전달하는 내용과 정서가 일치하는 일치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17]. 이 일치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숙하며, 기능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진실한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17] 어떤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역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4].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의 대인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화 경험, 자기애적 특성, 성인애착, 외벽주의 성향, 정서표현 양가성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졌다[4]. 그러나 성격적 강점과 관련된 연구는 삶의 만족감, 주관적 안녕감, 행복지수, 학업성취도, 심리적 안녕감, 우울,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 성격장애, 자기결정권 등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로 직접적으로 대인관계만족과의 관계 및 성격적 강점이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며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만족도와와의 연구는 있으나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을 함께 연구한 것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이 대인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원만한 대학생활과 추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를 파악한다.
- 1.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1.2.3.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2.4. 대상자의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5월 7일부터 28일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23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18]이 개발한 G-power 3.1.6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204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4명의 대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47.5%, 여학생이 52.5%였고, 평균연령은 20.68세이다. 1학년 22.1%, 2학년 19.1%, 3학년이 46.1%이고 4학년은 12.7%였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음이 77.9%이고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64.2%였고, 교제 경험이 없음은 22.1%였으며, 현재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도 35.8%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변수인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종속변수인 대인관계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된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척도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교육학 교수 1인 총 3인의 전문

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2.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이성교제경험 및 이성친구유무를 표시하게 하였다.

2.2.2. 성격강점

성격강점 척도는 백옥경[10]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지성적 성격강점 24 문항, 감성적 성격강점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나와 매우 다름' 1점에서 '나와 매우 비슷'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고, 반대질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성적 성격강점, 감성적 성격강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성적 성격강점은 .837, 감성적 성격강점은 .875 이었다.

2.2.3. 의사소통유형

의사소통유형 척도는 이상순[19]이 제작한 의사소통유형 검사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73문항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인 일차형 19문항,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 초이성형으로 5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1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802,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858 이었다.

2.2.4.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측정을 위해 박윤진[20]의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4이었다.

2.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격강점 중 지성적 성격강점은 최대 108점, 최소 46점, 그리고 평균 79.81 ± 9.98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33점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적 성격강점은 최대 102점, 최소 27점, 평균 58.70 ± 11.54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2.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국환[21]의 선행연구결과 지성적 강점 문항별 평균 3.29점, 감성적 강점 문항별 평균 3.5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반대로 지성적 강점보다는 감성적강점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유형 중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최대 79점, 최소 27점, 그리고 평균 61.20 ± 8.12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22 ± 0.43 점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최대 203점, 최소 83점, 평균 151.84 ± 17.75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2.81 ± 0.33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미례[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시대가 변할수록 대학은 낭만보다는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인식하다보니,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성숙한 인격으로의 성장보다는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대인관계만족도는 최대 119점, 최소 52점이었으며 평균 85.68±11.70점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43±0.47점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지성적 성격강점은 남성(3.39±0.47)이 여성(3.28±0.36)보다 높았고(t=2.119, p=.03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감성적 성격강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임국환[21]과 서혜진[24]의 연구에서도 지성적강점은 남학생이 높고 감성적강점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표현을 절제해야한다는 가부장적인 한국문화의 풍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교제경험이 있을 때(3.36±0.41) 이성교제경험이 없을 때(3.21±0.42)보다 지성적 강점이 높았지만(t=2.176 p=.03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3.39±0.43) 없

Table 1. The degree of Character Strengths, Communication Typ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N=204)

Variables		Max/Mini	Total Items M±SD	Item M±SD	(Cronbach's alpha)
Character Strengths	Intellectual	108/46	79.81± 9.98	3.33±0.42	.837
	Emotional	102/27	58.70±11.54	2.45±0.48	.875
Communication Types	Functional	79/27	61.20± 8.12	3.22±0.43	.802
	Dysfunctional	203/83	151.84±17.75	2.81±0.33	.858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19/52	85.68±11.70	3.43±0.47	.904

Table 2. Difference of Character Strengths, Communication Typ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University Students (N=204)

Categories		Character Strengths				Communication Typ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tellectual		Emotional		Functional		Dysfunctional		MD±SD	t/F(p)
		MD±SD	t/F(p)	MD±SD	t/F(p)	MD±SD	t/F(p)	MD±SD	t/F(p)		
Gender	Male	3.39±0.47	2.119	2.43±0.55	-.533	3.25±0.46	.906	2.58±0.36	1.680	3.45±0.51	.675
	Female	3.28±0.36	(.035)	2.46±0.40	(.594)	3.20±0.39	(.366)	2.78±0.30	(.094)	3.41±0.43	(.500)
Grade	Grade 1	3.24±0.41		2.57±0.56		3.17±0.47		2.90±0.31		3.49±0.47	
	Grade 2	3.32±0.39	1.400	2.41±0.43	.991	3.23±0.39	.233	2.81±0.31	1.667	3.35±0.52	.905
	Grade 3	3.37±0.41	(.244)	2.42±0.44	(.398)	3.24±0.43	(.873)	2.78±0.35	(.175)	3.45±0.46	(.439)
	Grade 4	3.33±0.46		2.37±0.54		3.23±0.43		2.76±0.27		3.36±0.40	
Experience of Date	Yes	3.36±0.41	2.176	2.42±0.50	-1.712	3.23±0.44	.561	2.80±0.34	-.638	3.43±0.47	.309
	No	3.21±0.42	(.031)	2.55±0.38	(.088)	3.19±0.39	(.575)	2.84±0.29	(.524)	3.41±0.47	(.758)
A Heterosexual friend	Yes	3.39±0.43	3.220	2.38±0.48	-2.776	3.26±0.45	1.876	2.78±0.35	-1.697	3.48±0.49	2.172
	No	3.20±0.36	(<.001)	2.57±0.45	(.006)	3.15±0.38	(.062)	2.86±0.28	(.091)	3.33±0.42	(.031)

는 경우(3.20 ± 0.36)보다 지성적 강점이 높았으며 ($t=3.220$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감성적 성격강점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2.38 ± 0.48)가 없는 경우(2.57 ± 0.45)보다 낮았고($t=-2.7769$, $p=.00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높았지만, 역 기능적 의사소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없고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25]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만족도는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3.48 ± 0.49)가 없는 경우(3.33 ± 0.42)보다 높게 나타났지만($t=2.172$ $p=.031$), 서미레[2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1학년이 높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구분이 되지 않았다.

3.3.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성격강점, 의사소통유형 및 대인관계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지성적 성격강점과 감성적 성격강점 ($r=-.514$, $p<.001$)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성적 성격강점과 기능적 의사소통유형($r=.376$, $p<.001$), 대인관계만족도($r=-.503$, $p<.001$)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성적 성격강점과 기능적 의사소통유형($r=-.254$, $p<.001$), 대인관계만족도($r=-.425$, $p<.001$)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r=.444$, $p<.001$)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24]의 연구결과 지성적 성격강점 혹은 감성적성격강점이 높을 경우 대학생 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지닌 성격강점을 잘 인식할수록 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만족도($r=.564$, $p<.001$)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4]의 결과와 일치하며, 지적이기보다 감성적 성격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적절하고 기능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3.4. 대상자의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이성친구 유무 및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성적 성격강점과

Table 3. Correlation on Matrix of Variables

(N=204)

Variables	Intellectual Strength	Emotional Strength	Functional Communicati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r(p)				
Intellectual Strength	1				
Emotional Strength	-.514 ($<.001$)	1			
Functional Communication	.376 ($<.001$)	-.254 ($<.001$)	1		
Dysfunctional Communication	-.032 (.652)	.444 ($<.001$)	.112 (.11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503 ($<.001$)	-.425 ($<.001$)	.564 ($<.001$)	.022 (.758)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N=204)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p)
	1.371	.370		3.705	.000			
Experience No								26.57
Date Yes	-.064	.060	-.057	-1.057	.292	.45	.43	(<.001)
Character Intellectual	.289	.075	.257	3.878	.000			
Strengths Emotional	-.187	.061	-.192	-3.081	.002			
Functional Communication	.462	.063	.422	7.352	.000			

감성적 성격강점,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성친구 유무는 없음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736으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97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639~.974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27~1.564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45%(R²=.45, Adj R²=.4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F=26.57, p<.001). 기능적 의사소통유형(β =.422)이 대인관계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지성적 성격강점(β =.257), 감성적 성격강점(β =-.192)순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적 의사소통유형(B=.462, p<.001)과 지성적 성격강점(B=.289, p<.001)은 높을수록, 감성적 성격강점(B=-.187, p=.002)은 낮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은미[2]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요인(일치형, 초이성형,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 중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준형[5]의 연구에서는 일치형 집단이 보다 높은 대인관계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일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2] 대인관계 문제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만족도 향상을 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와는 다르지만 최미영[26]은 연구에서 내외향성이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성격관련 독립변수인 성격강점(지성적 성격강점, 감성적 성격강점)이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 요인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격강점에 관한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지성적 성격강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지성적 강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감성적 성격강점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지성적 성격강점과 감성적 성격강점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성적 성격강점과 기능적 의사소통유형, 대인관계만족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성적 성격강점과 기능적 의사소통유형, 대인관계만족도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만족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의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지성적 성격강점, 감성적 성격강점이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는 지성적 성격강점과 감성적 성격강점,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영향요인이었으므로 자신의 의사소통유형과 성격강점에 대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 외 비교과 학습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 및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의사소통유형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며, 대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격강점 및 의사소통 유형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W. W. Hartup, N. Stevens, "Friendships and Adapta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ical Science*, Vol.8, No. 3, pp.76-79. (1999)
2. J. U. Kim, E. M. Jung,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mmunication Types on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 pp.619-636,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619>
3. K. H. Le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1).
4. E. M. Jung,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mmunication Types on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3).
5. J. H. Lee, *A Study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the Communication Types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4).
6. S. Y. Kang, *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9).
7. S. M. Kwon, "Cognitive-behavioral explanatory model of interpersonal maladjustment in University students", *Student research*, Vol.30, No.1, pp.38-63, (1995).
8. S. M. Kwon, *Relationship Psychology*, Seoul: Hakjisa, (1997).
9. O. K. Baek, C. J. Kim, "Analysis on the primary of character strength that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5, No.1, pp.228-23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28>
10. O. K. Baek,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of Character strengths*,

- Self-deter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angmyung University, (2014).
11. M. E. P. Seligman, M. Csikszentmihalyi,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5-14, (2000).
DOI:http://dx.doi.org/10.1037/0003-066X.55.1.5
 12. M. E. 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2).
 13. N. Park, C. Peterson, M. E. P. Seligman,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3, pp.603-619, (2004).
DOI:http://dx.doi.org/10.1521/jscp.23.5.628.50749
 14. T. S. Kim, "Verification of the effect on the Positive Group Psychological Counselling Program for higher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on test anxiety and learning motiv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1).
 15. H. E. Lee, *Effects of PGAT Program on the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9).
 16. V. Satir, J. Banmen, J. Gerber,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 Beyond*, Palo Alto, Calif :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91).
 17. M. J. Jeong, *Satyr Empirical Family Therapy*, Seoul: Hakjisa, (2003).
 18.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pp.1149-1160, (2009)
 19. S. S. Lee, *Analysis of communication stance by psychological tendenc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8).
 20. Y. J. Park,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1).
 21. G. H. Im,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d University, (2013).
 22. Y.R. Jo.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and Character Strengths on Stress Response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3).
 23. M. R. Seo,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Types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07).
 24. H. J. Seo.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6).
 25. S. Y. Shin, *The Types of Family Communication of College Student Influences on their College Life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moon University, (2017).